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07호 【루계 제25350호】 주체105(2016)년 7월 25일 (월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을 축하하는 집회

앙 골 라 에 서 진 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을 축하하는 집회가 14일 앙골라에서 진행되었다.

집회에는 앙골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앙골라국회 의원 엘리제오는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존경하는 김정은각하께 열렬한 축하를 드린다.

김정은각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은 그이의 선군령도밑에 김일성주석께서와 김정일각하께서 개척하고 이끌어오신 주체혁명위업을 키어이 완성하려는 전체 조선인민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의 과시로 된다.

그 어떤 세력도 김정은각하의 두리에 굳게 뭉쳐 강국건설을 힘차게 다그쳐나가고있는 조선인민의 전진을 가로막을수 없다.

앙골라 엠뽀로예홍회사 부홍사장 알메슈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존경하는 김정은각하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것은 조선인민뿐아니라 진보적인류의 커다란 기쁨이다.

지금 세계의 관심은 적대세력들의 가증되는 압살책동에도 끄떡없이 자력자강의 기치를 높이 들고 꿋꿋이 나아가는 조선에 집중되고있다.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은 반드시 최후승리를 이룩할것이다.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낸다.

불세출의 위인을 모신 조선의 앞날은 휘황찬란하다

외 국 의 벗 들 높 이 칭 송

우리 나라를 방문한 외국의 벗들이 무비의 기상과 담력을 지니신 백두산형의 장군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와 칭송의 목소리를 터치였다.

로씨야 원동지역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협회대표단 단장 겐나지 꼴리꼬브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령장으로서의 탁월한 지략과 령군술을 지니고계신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위업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그이께서는 군대와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미제를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의 책동으로부터 조선의 자주권을 빛나게 수호하고계신다. 그이의 존함만 들어도 미제와 세계반동들은 공포에 떨고있다.

정녕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세계반제혁명력량이 우러르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다.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 공동리사장 죠니 혼은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싸우는 조선은 자주를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당들과 인민들의 투쟁의 본보기로 된다고 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으로 하여 조선은 경제전설과 인민생활에서 많은 애로와 난관을 겪었다. 그러나 조선인민은 이 모든것을 과감히 뚫고나가며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으로 부강조국을 건설해나가고있다.

푸비의 기상과 담력을 지니신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펼치신 선군정치를 빛나게 계승해나가신다.

오늘 조선반도정세는 극도로 긴장하지만 조선은 군사를 국사중의 국사로 내세우고 그 위력으로 끄떡없이 전진하고있다.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정의의 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인민에게는 언제나 승리만이 있을것이다.

수리아농민총동맹대표단 단장 하마드 압부드 알 사우드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이 일심단결과 강력한 군력을 가진 불패의 강국으로 위용떨치고있는것은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혁명위업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각하를 모시였기때문이다.

그이께서는 인류공통의 원쑤인 미제를 쳐물리치는 투쟁에로 조선의 당과 군대, 인민을 현명하게 이끌고계신다.

진보적인류는 세계의 평화와 자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는 김정은각하를 가장 절출한 정치가로 열렬히 칭송하고있다.

온 세계가 우러르는 불세출의 위인이신 김정은각하를 모신 조선인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민이며 조선의 앞날은 휘황찬란하다.

【조선중앙통신】

불멸의 전승업적 만대에 빛내이리

조국해방전쟁사적지를 지난 1년간 28만 7천여명이 참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3돐을 맞으며 조국해방전쟁사적지로는 참관자들의 대오가 끊임없이 흐르고있다.

이곳을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업적을 전하는 의의깊은 교양거점으로 더 잘 꾸리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에 의하여 지난해에 건지리혁명사적관이 새로 건설되였다.

조국해방전쟁사적지가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력사주의원칙에서 원상그대로 더욱 훌륭히 꾸려짐으로써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 자라나는 새 세대 청년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줄수 있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속에서 조국해방전쟁사를 통한 교양사업을 더욱 심화시켜야 하겠습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6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사적지를 현지지도하신 때로부터 이곳을 참관한 인민군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의 수는 7월 중순경까지만 해도 28만 7천여명에 달하였다.

이것은 당의 뜻을 받들어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전승업적과 선군혁명업적을 대를 이어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영원히 빛내이며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혁명의 최후승리를 기어이 이룩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의지의 뚜렷한 표시로 된다.

조국해방전쟁사적지는 주체40(1951)년 1월부터 전쟁이 끝날 때까지 2년 7개월동안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가 자리잡고있던 성스러운 력사의 땅이다.

이곳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계시던 최고사령부지휘처를 중심으로 수많은 사적건물들과 사적물들이 보존되여있다.

참관자들은 력사의 땅에 소중히 보존된 사적물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고있다.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와의 준엄한 정치군사적대결전을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주체전법, 푸비의 담력과 배짱, 고매한 인민적풍모를 력사적화폭으로 전하는 전지리혁명사적관을 돌아보며 참관자들은 숭엄한 감정에 휩싸이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화의 불비속을 헤치시며 전당, 전군, 전민을 반미성전에로 불러일으키시여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에 심대한 패배를 안기시고 조국과 민족의 영웅적기상을 만방에 떨치신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그들은 전설적영웅이신 우리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위대한 업적에 대하여 더욱 뜨겁게 절감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쟁시기 리용하신 작전실앞에서 참관자들은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있다.

집안이 너무도 작아 작전지도 마저 두 벽면에 걸지 않으면 안되였던 여기에서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를 깨여버리신 전출명장의 군사적예지와 지략이 빛발쳤고 적들의 군사기술적《우세》를 처참한 주검과 파철더미로 만들어버린 주체전법이 창조된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그들은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여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할수 있었음을 심장깊이 느끼고있다.

참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수여받으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신 곳, 공화국영웅 및 모범전투원들을 만나시여 담화하신 곳에서 하늘이 낸 백두령장의 기상을 경건한 마음으로 우러르고있다.

그들은 전화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손수 심어가꾸신 남새포전, 어머 수풍의 나무들 그리고 생물터를 비롯하여 전출위인의 체취가 뜨겁게 어린 장소들을 돌아보면서 절세의 애국자의 열렬한 조국애와 숭고한 인민적풍모에 격정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리용하신 집무실벽에 난 기총탄자리와 근처에 박힌 불발탄을 보면서 그들은 우리 혁명의 심장부를 해치려고 미쳐날뛴 계급적원쑤들과 미제공중비적들의 야만적인 폭격만행에 대한 솟구치는 증오와 복수심으로 가슴끓이고있다.

참관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건설된 최고사령부지휘처의 덧집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조국해방전쟁사적지를 어버이수령님의 령도업적을 대대손손 전하는 만년재보로 되게 하여주신 장군님의 고결한 충정과 도덕의리심에 감동을 금치 못하고있다.

모든 참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반제혁명업적을 만대에 길이 전하며 1950년대 조국수호세대들의 승리의 전통을 이어가도록 우리 군대와 인민을 정력적으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200일전투의 순간순간을 기적과 혁신으로 이어갈 불같은 결의를 다지고있다.

뜻깊은 전승절이 다가올수록 조국해방전쟁사적지를 찾는 참관자수는 계속 늘어나고있다.

전승의 성지에 끝없이 흐르는 이 충정의 대하는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전승업적과 선군령도업적을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로 세세년년 영원히 빛내여가려는 천만군민의 드팀없는 신념과 확고한 의지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한 영 민

세계적수준의 문화정서생활거점, 교육거점으로 훌륭히 일떠선 자연박물관과 중앙동물원 준공식 진행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의 령마루에로 힘차게 비약하는 주체조선의 참모습을 시위하며 자연박물관과 중앙동물원이 훌륭히 완공되였다.

연건축면적이 3만 5,000여㎡에 달하는 종합적인 자연박물관은 자연에 대한 옳바른 리해와 폭넓은 지식을 줄수 있게 우주관, 고생대관, 중생대관, 신생대관, 동물관, 식물관, 선물관 등과 전자열람실, 과학기술보급실까지 갖춘 대중교양 및 과학연구보급기지이며 특색있는 교육거점, 문화휴식장소이다.

인민들에게 훌륭한 문화휴식조건을 보장해주려는 당의 의도가 빛나게 실현된 중앙동물원은 멀리에서 보아도 어떤 동물사인지 한눈에 알아볼수 있게 독특하게 시공된 파충관과 원숭이관, 맹수사, 코끼리사, 기린사, 작은말사를 비롯하여 40여개의 동물사들이 주변경치와 어울리게 현대적으로 일떠서 천지개벽되였다.

과학성과 실용성, 친절성의 원칙에서 자연박물관이 불과 1년 남짓한 사이에 꾸려지고 직관성, 조형예술성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중앙동물원이 최상의 수준에서 개건됨으로써 사회주의문명강국을 건설하는 우리 당의 리상과 목표가 얼마나 웅대하고 우리 인민이 누리는 문명이 어떤 경지에 이르렀는가를 웅변으로 실증해주고있다.

우리 당의 원대한 문명강국건설구상에 따라 세계적수준의 문화정서생활거점, 교육거점으로 훌륭히 일떠선 자연박물관과 중앙동물원 준공식이 24일에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준공식장에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는 구호판들이 준공식장에 세워져있었다.

또한 《무궁토록 번영할 김정은강성조선의 래일을 앞당기자!》,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창조하며 향유하자!》, 《선군시대에 만년대계의 창조물을 더 많이 마련하여 후대들에게 물려주자!》라는 구호판들이 세워져있었다.

준공식장상공에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만세!》,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 만세!》, 《결사옹위》, 《일심단결》이라는 구호와 글발들을 드리운 대형기구들이 떠있었다.

박봉주동지, 최태복동지, 오수용동지, 로두철동지, 김수길동지와 리주오 내각부총리, 당, 무력, 성, 중앙기관 일군들, 자연박물관건설과 중앙동물원개건보수공사에 기여한 군대와 사회의 일군들, 건설자들, 평양시안의 기관, 공장, 기업소 일군들,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준공식에 참가하였다.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하고있는 해외동포들이 참가하였다.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 무관부부들과 대사관성원들, 우리 나라에 체류하고있는 외국손님들이 여기에 초청되였다.

준공식은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노래주악으로 시작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총리인 박봉주동지가 준공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 뜻깊은 올해를 승리자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충정의 200일전투에 산악같이 떨쳐나 날에날마다 만리마속도를 창조해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풍치수려한 대성산기슭에 훌륭히 일떠선 자연박물관과 중앙동물원 준공식을 진행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자연박물관과 중앙동물원은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 후대사랑에 의하여 일떠선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이며 우리 당이 인민들과 청소년학생들에게 안겨주는 은정깊은 선물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문명강국의 체모에 맞는 현대적인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을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일떠세워야 하겠습니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인민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돌우에도 꽃을 피우시는 숭고한 인민사랑으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어려있는 중앙동물원에 동식물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줄수 있는 종합적인 자연박물관을 건설하며 동물원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개건하는 사업을 직접 맡기시고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주체103(2014)년 3월 11일 혁명령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중앙동물원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흙먼지가 흩날리는 공사현장을 돌아보시면서 몸소 자연박물관의 터전도 잡아주시고 중앙동물원을 세계적인 동물원으로 개건하는데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수백건의 설계형성안과 시공으로부터 본관입구를 법조각상으로 형상함에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150여차의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며 공사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최우선적으로 풀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는 자연박물관과 중앙동물원의 하나하나의 건축물들마다에 력력히 아로새겨져있다.

지난 5월 20일 완공을 앞둔 자연박물관과 중앙동물원을 또다시 찾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연박물관이 일떠서게 됨으로써 우리 청소년학생들과 근로자들을 위한 또 하나의 특색있는 교육거점, 문화휴식장소가 마련되였다고, 중앙동물원이 문을 열게 되면 우리 인민들의 행복과 기쁨은 더없이 클것이며 세계문명의 단상에 당당히 서있다는 긍지로 가슴부풀게 될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자연박물관과 중앙동물원은 우리 당의 주체적인 건축미학사상과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철저히 구현된 현대문명의 본보기건축물이며 인민사랑의 숭고한 결정체이다.

연설자는 자연박물관과 중앙동물원은 당이 결심하면 무조건 하고야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결사관철의 정신과 자력자강의 위력을 과시하는 기념비적창조물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당의 전투적과업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은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높이 낮과 밤이 따로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려 짧은 기간에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자연박물관을 일떠세우고 중앙동물원의 면모를 완전히 일신하는 영웅적기적을 창조하였다.

성, 중앙기관을 비롯하여 건설에 참가한 단위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 창작가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경제봉쇄책동을 국산화의 된바람으로 짓부셔버리며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완공의 날을 앞당기기 위해 충정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연설자는 자연박물관과 중앙동물원이 우리 인민의 감정정서와 현대적미감에 맞게 독특한 건축형식으로 훌륭히 건설된것은 전적으로 우리 인민들에게 세계적수준의 문화정서생활기지를 마련해주시기 위해 불면불휴의 헌신과 로고를 다 바쳐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실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우리 인민에게 이 세상 만복을 다 안겨주시며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의 최전성기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연설자는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이 땅우에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힘차게 울려퍼지는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우리가 누리는 오늘의 행복도, 무궁번영할 조국의 래일도 있다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심장속에 쪼아박고 우리 당의 문명강국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자연박물관과 중앙동물원의 전체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지니고 인민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원칙에서 봉사활동과 관리운영을 빈틈없이 짜고들어 당의 은정이 청소년학생들과 인민들에게 더욱 뜨겁게 가닿도록 할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건설부문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최상의 문명을 최상의 속도로 창조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빛내이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건설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연설자는 모두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결정을 높이 받들고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림으로써 사회주의문명강국, 인민의 락원을 하루빨리 일떠세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행복의 래일》노래주악이 울려퍼지는 속에 군대와 사회의 건설자대표들, 공로자, 청년대학생, 중학생대표들이 준공테프를 끊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주체조선의 국력과 문명의 높이를 과시하며 훌륭하게 건설된 자연박물관과 중앙동물원을 돌아보았다.

세계적수준으로 희한하게 꾸려진 자연박물관과 중앙동물원의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그들은 우리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랑, 인민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크나큰가를 온넋으로 절감하였다.

자연과 그 진화발전에 대한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을 주며 직관적으로, 조형예술적으로 완벽하게 꾸려져 보면 볼수록 경탄을 자아내는 자연박물관과 중앙동물원의 동물사들마다에 세계문명의 단상에 올라선 인민의 행복과 기쁨이 끝없이 넘쳐났다.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도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희한하게 일떠선 자연박물관과 중앙동물원을 돌아보며 자기 힘으로 사회주의문명을 창조해나가는 조선인민의 모습에 감탄을 표시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 인민들에게 세상에서 으뜸가는 문화휴식장소를 마련해주시려던 위대한 수령님들의 념원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하면서 사회주의문명강국의 창조자, 향유자로 참된 삶을 누려가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있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자욱이 력력히 어려있는 대성산지구에 훌륭히 일떠선 자연박물관과 중앙동물원은 사회주의만복을 누려가는 우리 인민들과 청소년학생들의 기쁨넘친 모습과 더불어 더욱 빛을 뿌릴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승리는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전통이다

백두에서 뿌리내린 조선혁명의 승리의 전통은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진군길에서도 꽃꽃이 이어지고있다. 천만군민이 필승의 신심드높이 200일전투의 혁혁한 전과로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며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억세게 전진해나가고있다.

승리의 전통, 이것은 억만금과도 바꿀수 없는 선군조선의 만년재보이고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미일 두 제국주의강적을 타승하고 세기와 년대를 이어 반제반미대결전에서 련전련승의 기적을 창조한 자랑스러운 전통을 끝없이 빛내여나갈것이다.

1

력사의 준엄한 폭풍우속에서도 실패와 좌절을 모르고 힘차게 전진하는 혁명에는 반드시 선렬들이 피와 땀으로 이룩한 고귀한 전통이 있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 언제나 투쟁의 지침이 되여주고 불굴의 정신력을 안겨주는 위대한 전통은 혁명승리의 원동력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혁명은 수령의 위업이며 수령은 혁명투쟁과 력사발전에서 결정적역할을 한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물리치고 조국과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혁명전쟁에서도 승리의 근본담보는 수령의 탁월한 령도에 있다. 전승의 위대한 력사와 전통은 곧 수령의 비범한 령도력의 결정체이다.

백두산대국의 승리의 전통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창조되고 빛나게 계승되여온 반제반미투쟁의 고귀한 전취물이며 우리 혁명의 영원한 재보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는 20세기의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서산락일의 운명에 몰아넣은 승리의 전통이 있습니다.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승리의 전통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였습니다.》

인류전쟁사의 갈피마다에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한 투쟁에서 조국과 민족앞에 거대한 공적을 세운 로동계급의 수령들과 명장들이 적지 않게 기록되여있다. 그러나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같이 독창적인 군사사상과 전략전술, 무비의 담력과 배짱, 비범한 령군술로 한세대에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고 장구한 기간 치렬한 반제반미대결전에서 련전련승을 이룩한 천하제일명장, 걸출한 수령은 없었다. 제국주의자들에게는 수치스러운 패배의 전통을 영원한 숙명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는 자랑스러운 승리의 전통을 끝없는 영광으로 력사에 새겨놓으신 바로 여기에 선군혁명의 개척자, 령도자이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이 있다.

진보와 반동,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사이의 격렬한 투쟁이 벌어진 20세기에 이어 21세기에도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계속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 군사적압력과 침략책동은 세계정치구도, 나라와 민족들의 운명에 참으로 각이한 영향을 미치고있다. 수많은 국가들의 존엄과 자주권이 유린당하고 민족분쟁의 류혈참극이 끊임없이 빚어지는 오늘의 세계에서 인류는 승리의 력사와 전통을 꿋꿋이 이어나가는 영웅조선, 백두산대국을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고있다.

오늘 우리의 전쟁로병들과 전시공로자들을 비롯한 1950년대 조국수호자들과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은 내 나라, 내 조국을 그 어떤 원쑤도 감히 범접 못하는 불패의 강국으로 일떠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심장으로 절감하고있으며 선군조선의 승리와 번영의 억년키를을 마련해주신 수령님들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고있다.

백두산대국의 승리의 전통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미일 두 제국주의강적을 때려부시며 창조하신 백전백승의 전통이다.

혁명전쟁사에는 제국주의자들과의 대결전에서 승리한 전투, 승리한 전쟁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그 승리가 백번 싸우면 백번 다 이기는 민족의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이어진 례는 없다. 백전백승의 전통은 위대한 사상과 전법, 전략전술을 펼쳐나가는 걸출한 수령에 의해서만 창조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주체의 군사사상과 전법, 령활무쌍한 전략전술로 수적, 기술적으로 우세한 제국주의강적들을 타승하시고 백두산대국의 승리의 전통을 창조하신 군사의 영재, 강철의 령장이시다.

《아시아의 맹주》로 자처하며 침략과 략탈로 광활한 대륙을 타고앉았던 일제가 《창해일속》에 지나지 않는다던 조선인민혁명군에 의하여 이땅에 패망하였는가는 온 세상이 다 알고있다. 민족의 자주적운명개척의 진로를 밝히시고 조국해방의 원대한 작전적구상을 펼치시며 신출귀몰하는 전법으로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의 100만대군을 쥐락펴락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자욱은 백두산 줄기줄기, 압록강 굽이굽이에 력력히 새겨져있다. 항일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유격전의 기본원칙을 구현하시면서 몸소 창조하신 소부대와 대부대의 배합작전과 매복전, 습격전, 동성서격전술, 망원전술, 일행천리전술을 비롯한 전략전술들은 일제를 전멸시킨 우리 식의 우월한 전법이였다. 20성상의 피어린 항일대전에서 백두산대국의 승리전통의 시원을 마련하신것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이룩하실수 있는 빛나는 업적이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은 창건된지 불과 2년밖에 안되는 우리 공화국이 침략과 략탈로 비대해지고 오만해진 미제와 맞선 어려운 싸움이였으며 보병총과 원자탄의 대결이라고 할수 있는 이 전쟁에서 청소한 조선이 이길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미국은 자기 나라 륙군의 3분의 1, 공군의 5분의 1과 태평양함대의 대부분 그리고 15개 추종국가군대들과 남조선괴뢰군, 일본군국주의자들을 포함한 200여만명의 대병력, 수많은 침략전쟁들에서 《승리》의 《경험》을 쌓았다는 살인장군들을 조선전쟁에 들이밀었다. 그러나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전략적, 작전적방침들과 비행기사냥군조운동, 저격수조운동, 땅크사냥군조운동, 갱도전, 습격전 등 세계전쟁력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탁월한 군사전법들의 위력앞에 여지없이 참패를 당하였다.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에서 100여년의 침략력사를 가진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를 깨버리시고 적들이 쓰디쓴 패배와 파멸의 수치를 안고 네리막길에 들어서게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업적은 반제혁명투쟁사에 길이 빛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군사사상과 전략전술, 전법은 사람을 기본으로 하여 전쟁승리에 작용하는 모든 요인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일수 있게 하는 주체의 군사사상이고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침략전쟁도 일격에 짓부셔버릴수 있는 백승의 전략전술이며 그 어느 나라 군사교범에도 없는 우리 식의 새롭고 독창적인 전법이다.

수령의 위대성은 업적의 위대성이다. 한 세대에 가장 로약한 두 제국주의강적을 타승하시고 우리 조국이 영원히 승리할수 있는 만년초석을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님을 세계 진보적인류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령장의 슬기와 비범한 군사예술을 지니신 절세의 대영웅》, 《인류해방의 구성》으로 높이 칭송하고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우리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고귀한 전통을 백승의 기치로 틀어쥐고나가는 선군조선의 앞날은 끝없이 휘황찬란하다.

백두산대국의 승리의 전통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장구한 기간의 반제반미대결전에서 빛나게 계승해오신 련전련승의 전통이다.

승리의 력사와 전통은 계승되여야 빛난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사는 아무리 위대한 전승의 력사를 가진 나라도 그것을 대를 이어 꿋꿋이 계승해나가지 못하면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수령이 개척한 승리의 력사와 전통은 수령의 사상과 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걸출한 령도자를 높이 모실 때 굳건히 이어질수 있다는것이 우리의 반제반미투쟁사가 가르치는 철의 진리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전에 김정일동지는 백두산의 기상과 기질을 타고난 장군이라고 하시면서 그 어떤 광풍이 불어와도 드놀줄 모르는 불변의 혁명적신념과 불굴의 강의한 의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영웅호걸다운 배짱과 무비의 담력, 난관을 맞받아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 끝없이 샘솟는 무한대의 열정과 같은 김정일동지의 특이한 성품들은 다 백두산에만 비길수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승리의 전통을 끝없이 이어나가는 길에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존엄과 강성번영이 있다는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투철한 신념이였다. 적들이 칼을 빼들면 장검을 휘두르고 총을 들이대면 대포를 내대는 초강경대응으로 제국주의자들의 횡포한 압력과 도전을 단호히 제압분쇄하시는 백두명장의 강인담대한 배짱이 있었기에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과 《EC-121》대형간첩비행기사건, 판문점사건을 비롯한 미제의 새 전쟁도발책동들은 풍지박산나고말았다. 20세기 90년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공격화살이 우리 공화국에 집중되였을 때에도 조선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철석의 의지는 천만군민을 반제반미성전에로 산악같이 일떠세운 근본원천으로 되였다. 인민군대를 무적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시고 군민대단결의 위력을 천백배로 높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에 의하여 우리의 승리전통을 끝없이 빛내여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반제대결전은 끊임없는 공격전이다. 그 어떤 뢰성벽력에도 끄떡하지 않고 완강히 맞받아나가는 공격형의 위대한 장군만이 련전련승을 펼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군사사상과 전법, 전략전술을 그대로 체현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공격방식은 령활한 지략으로 적들을 련속적인 괴롭에 몰아넣는 빨찌산식이며 천만군민을 총궐기시켜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는 비범한 령군술이고 아무리 복잡하게 얽힌 정세도 주동적으로 타개해나가는 백승의 투쟁방식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천변만화하는 빨찌산식공격전법에 의하여 2중 3중으로 가해지는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의 포위환에 파렬구가 열리고 적들의 아성에서는 잘피를 못 잡고 미궁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원쑤들의 비명만이 울리게 되였다. 우리 조국이 강력한 전쟁억제력을 가진 불패의 강국으로 위용떨치게 된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민족사적승리이다.

《…사실 미국은 북조선의 김정일장군때문에 전쟁을 하지 못하였다. 장군이 이룩한 일심단결이라고 하는 폭탄의지와 아직도 우리가 다 알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은 이북의 국방공업이 두려워 그네들은 전쟁을 차마 하지 못하는것이다. 전쟁을 하여도 그 결과는 비참하리라는것이 바로 미국의 백번의 생각이다.》, 이것이 언제인가 어느 한 나라 군사전문가가 인터네트에 실은 평론 《미국은 왜 전쟁을 하지 못하는가》의 한 대목이다.

백두의 선군령장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승리의 전통이 빛나게 계승된것은 우리 조국의 크나큰 영예이며 천만군민의 더없는 긍지이다.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정과 강철의 신념, 대담무쌍한 공격정신으로 제국주의자들의 항시적인 전쟁도발책동을 짓밟아 짓부시고 주체의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백두산대국의 승리의 력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것이다.

2

백두산대국의 승리의 전통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선군조선의 천만년미래를 확고히 담보하는 영원한 전통으로 빛을 뿌리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이 걸어온 력사는 우리 혁명이 백두에서 개척되여 오늘까지 승리하여온 영광넘친 로정이며 바로 이 길이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계속 걸어나가야 할 영원한 승리의 길, 조국번영의 길이다.》

오만무례한 미제침략자들을 타승하고 공화국기를 휘날리며 전승의 축포를 쏘아올리던 승리의 그날로부터 60여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세대가 바뀌고 세기를 넘어온 장구한 기간 반미투쟁의 최전선으로 되여온 이 땅우에는 어느 한시도 침략과 전쟁의 불구름이 떠돌지 않는 때가 없었고 세계정치정세도 크게 변화되였다. 하지만 우리 군대와 인민은 끄떡없이 자주적근위병의 위용을 떨치고있으며 우리 조국은 반제자주의 보루, 평화의 성새로 높이 솟아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창조하고 계승해오신 백두산대국의 승리의 전통을 우리 혁명의 만년초석으로 틀어쥐고나가시는 절세의 애국자,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시다.

위대한 승리전통의 100% 고수, 100% 계승속에 우리 조국의 찬란한 미래가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전승업적과 선군혁명업적을 깊이 체득하고 대를 이어 끝없이 빛내여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고계신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전하는 전승관으로, 반일, 반미계급교양의 거점으로, 승리전통교양의 중심지로 훌륭히 꾸리도록 하신분도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며 《7.27행진곡》, 《승리는 대를 이어》, 《근위부대자랑가》를 비롯한 명작들을 창작하도록 하시어 천만군민을 최후승리의 총공격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신분도 우리 원수님이시다.

천리해안의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통찰력, 신묘한 군사적지략과 탁월한 령군술, 천만군민을 끓어안는 뜨거운 열과 정을 지니시고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신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크나큰 영광이다. 백두의 천출명장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선군조선의 력사는 위대한 승리의 년대로 끝없이 이어질것이다.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는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다.

위대한 승리전통의 생명력은 무적의 총대에 의하여 담보된다. 총대가 약하면 제국주의자들과 싸워 이길수 없으며 결국에는 민족의 자랑스러운 전통이 원쑤들의 롱락물로 되고만다. 총대로 수호되고 굳건해지는것이 승리의 전통이다.

선군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령도하여오신 조선혁명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다. 일찌기 무장한 적과는 오직 무장으로 맞서 싸워야만 승리할수 있다는 혁명투쟁의 진리를 밝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총대에 의거하여 조국의 자주적존엄을 높이 떨치시였다. 선군혁명의 주력군인 인민군대를 백방으로 강화하시며 국방위주의 국가기구체계를 확립하시고 총대중시,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국방공업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공화국은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위용떨치게 되였다. 백두산대국의 승리의 전통은 곧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광스러운 선군혁명력사의 집대성이다.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우리 혁명무력은 전군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중앙을 절사옹위하는 천연요새로, 우리의 국방공업은 첨단무장장비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백두산혁명강군의 병기창으로 더욱 강화발전되고있다. 모연지옥한 훈련장들을 찾고찾으시며 전투력강화의 대장을 밝혀주시고 적들의 총구가 도사리고있는 무도와 장재도, 판문점과 까칠봉초소를 비롯한 최전방에까지 나가시여 인민군장병들에게 조국수호의 사명감을 더 깊이 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는 혁명무력강화의 근본원천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선군령장의 슬하에서 인민군장병들은 백전백승의 김일성-김정일군사전략전술과 완벽한 실전능력을 소유한 현대전의 능수, 진짜배기싸움군들로 더욱 튼튼히 준비되고있다. 국방과학부문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우리 식의 위력한 주체무기들을 더 많이 연구개발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으며 전체 인민이 미제와 반드시 최후결판을 내려는 필적의 의지로 가슴끓이고있다.

장자앞에서는 비굴해지고 약자앞에서는 포악해지는것이 미제의 비렬성이고 승냥이본성이다. 미제가 우리를 반대하여 2만여차례의 전쟁연습을 감행하고 지금 이 시각도 광란적인 핵전쟁도발책동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지만 우리 공화국을 감히 어쩌지 못하고있는것은 백두산총대가 강하기때문이다. 미국놈들이 핵을 쥐고 우리를 위협공갈하던 시대는 영원히 종식되였으며 이제는 미국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이상의 위협과 공포의 존재가 아니라 도리여 우리가 미국놈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협과 공포로 되고있는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이다. 만일 미국이 전쟁의 도화선에 불붙내 불을 단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게 원쑤들을 완전히 격멸소탕해버리는 위대한 전승사를 가슴후련히 써나갈것이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떠미는 원동력이다.

위대한 승리의 전통은 위대한 정신력으로 이어진다. 사상과 정신이 흐려지면 훌륭한 전통도 빛을 잃게 된다는것이 력사의 교훈이다. 전통의 계승이자 정신력의 계승이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신념을 더욱 굳게 벼려주고 폭풍에도 굽힘없는 의지를 백배해주는 더없이 귀중한 사상정신적무기이며 활력소이다. 지난해 4월 백두산정에 오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백두의 칼바람을 맞보아야 백두산의 진짜맛을 알수 있으며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성하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지게 된다고 하시면서 백두산으로 오르는 길은 그 어떤 핵무기의 위력에도 비할수 없는 귀중한 정신적량식을 안겨주는 길, 백두의 혁명전통을 빛내여가는 길, 영광넘친 조선혁명의 명맥을 꿋꿋이 이어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여기에는 천만군민을 백두전구의 빨찌산들로 튼튼히 준비시켜 선군조선의 자랑찬 승리의 전통을 빛내여나가시려는 위대한 백두명장의 웅지가 백박치고있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심장속에 영원히 틀어안고 살아야 할 숭고한 정신이며 온 세상 금은보화를 다 준다고 해도 절대로 바꿀수 없는 가장 귀중한 정신적재보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창조하고 계승해오신 승리전통의 근본바탕에는 백두의 혁명정신이 놓여있다. 그 어떤 난관도 맞받아뚫고나가는 돌격정신, 억천만번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 싸우는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으로 반제반미대결전을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백두명장들이 바로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이시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밑에 백두의 혁명정신에 뿌리를 둔 영웅적투쟁정신들이 창조되여 우리의 승리의 전통은 꿋꿋이 이어져왔다. 백두산대국의 최후승리는 곧 백두의 넋과 기상, 백두의 담력과 배짱의 승리이다.

오늘의 총공격전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에 종지부를 찍고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진리의 힘을 남김없이 발휘하기 위한 전인민적인 총결사전이다.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항일의 불바다만리, 눈보라만리를 헤치며 싸워 승리한 혁명선렬들처럼 투쟁하면 무서울것도 못해낼 일도 없다. 천만군민이 우리 당의 굴함없는 공격적인 혁명사상,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연길폭탄정신, 소왕청과 처창즈의 절사항전정신을 심장마다에 만장약하고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폭풍노도처럼 힘차게 내달리고있기에 승리의 전통은 언제나 우리의것이다.

군민대단결은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승리를 담보하는 근본초석이다.

군민일치는 우리 사회의 밑뿌리이며 선군혁명의 천하지대본이다.

우리의 군민대단결은 천만군민이 사상의 일치, 투쟁기풍의 일치를 이룬 진정한 동지적단결이며 혁명의 한길에서 끝까지 생사를 같이하는 하나의 운명공동체이다. 우리 인민군대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선군령도밑에 《인민》이라는 고귀한 이름과 더불어 세기와 년대를 이어 언제나 인민과 어깨겯고 혁명의 준엄한 폭풍우를 헤쳐왔다. 고기가 물을 떠나 살수 없듯이 군대는 인민을 떠나서 존재할수 없다는것, 군민이 단결된 힘만 있으면 그 어떤 대적도 반드시 타승할수 있다는것이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간직하고 구현해오신 단결의 철학이다. 백두산대국의 승리의 력사와 전통은 바로 군민대단결의 위력과 하나로 잇닿아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고귀한 유산으로 물려주신 군민대단결은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에 의하여 최상의 경지에 올라섰다. 물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심방어대 군인들을 찾으시여 여기는 혁명의 진지이며 군인들의 삶은 당의 피줄과 이어져있다는 최상최대의 믿음을 안겨주신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며 원군, 원민미풍선구자들의 소행을 아시면 그 누구보다 기뻐하시며 온 나라가 다 알도록 내세워주시는분도 우리 원수님이시다. 지난해 그 누구의 지원도 동정도 없는 력사의 돌풍속에서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 혁명의 전위를이 굳건히 수호되고 라선땅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이 창조될수 있은것은 당을 따라 천만군민이 사선의 고비도, 험난한 진펄길도 함께 헤쳐나가는 군민대단결의 거대한 힘이 낳은 고귀한 결실이다.

당이 번개를 치면 우뢰로 화답하며 산도 떠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군민대단결의 위력은 조국땅우에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오늘과 래일이 다르게 변하는 천지개벽의 새 력사를 펼쳐놓는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승리에서 보다 큰 승리에로 질풍같이 내달리는 우리 혁명의 시계초침은 조선로동당의 군대이며 사회주의수호전의 결사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돌격대인 인민군대의 발걸음속도를 따라 돌고있다. 인민군대에서 높이 발휘되고있는 군인정신, 군인기질, 군인본때는 온 사회에 급속히 파급되여 전체 인민의 영웅적진군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선군혁명의 최후대, 억척의 지지점인 인민군대와 사회주의의 기초인 인민이 일심동체가 되여 투쟁하고있기에 우리 조국의 승리의 력사는 위대한 창조와 변혁의 자랑찬 서사시로 끝없이 수놓아질것이다.

* *

위대한 전통을 계승하는것은 혁명하는 인민의 가장 신성하고 영광스러운 사업이다.

승리의 전통은 조국번영의 새로운 력사창조의 뿌리로, 후손만대의 영원한 행복을 꽃피워주는 고귀한 밑천으로 된다. 우리는 승리의 전통을 대를 이어 끝없이 빛내여나가는 길에 조국과 혁명의 양양한 전도와 미래가 있다는것을 뼈속깊이 쪼아박고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야 한다.

승리의 전통계승에서 중요한것은 수령의 혁명사상과 로선, 업적의 빛나는 계승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전지해오신 자주적인 혁명로선과 혁명방식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길에 우리 혁명의 승리가 있고 민족만대의 번영이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생토록 걸으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은 조선혁명의 불변침로이며 백승의 진로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 어떤 세찬풍파가 닥쳐와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가는 김일성동지의 후손,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로서의 혁명적본분을 다해나갈것이다.

반제반미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은 승리의 전통을 꿋꿋이 이어나가기 위한 중차대한 사업이다.

사상이 탁색되면 붉은기가 퇴색되게 된다.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혁명의 파도는 절대로 멎할수 없다. 원쑤들에 대하여 털끝만 한 환상이라도 가진다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신천땅의 피의 교훈은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투철한 계급의식을 더욱 깊이 심어주어야 한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우리의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굳건히 수호하려는 우리 당의 결심과 의지는 확고부동하며 미제와 반드시 결판을 내고야말 천만군민의 보복열기는 더욱 더 백배해지고있다.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은 조선은 100년이 걸려도 일떠서지 못한다고 떠벌이던 미제에게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준 천리마세대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이어받아 만리마의 억센 나래를 펼치고 이 땅우에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기 위한 전인민적총진군운동이다. 백두산대국의 후손만대를 위하여 만리마속도창조운동에 총매진하여 승리의 전통을 꿋꿋이 이어나가는 영웅적군대와 인민의 강용한 기상과 불굴의 창조정신을 꺾을자는 이 세상에 없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에서 위대한 승리자들의 존엄과 영예를 더욱 높이 떨쳐나가야 할것이다.

김 성 룡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몽골방문 60돐에 즈음한 행사 울란바따르에서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몽골방문 60돐에 즈음하여 19일 울란바따르에서 집회와 영화감상회가 진행되였다.

행사장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주체조선을 소개하는 출판물들이 전시되여있었다.

영화감상회에서는 날로 변모되는 평양을 소개하는 우리 나라 영화가 상영되였다.

행사에는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몽골준비위원회, 몽골외무성, 몽골 자주적발전을 위한 백두산협회, 몽골김정일화협회, 몽골주체연구센터의 인사들 그리고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일군들이 참가하였다.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몽골준비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지금으로부터 60년전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몽골인민의 친근한 벗이신 김일성주석께서 몽골을 방문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몽골방문은 두 나라 관계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다.

나는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위대성에 대하여 잘 알고있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존경하는 김정은각하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시였다.

존경하는 김정은각하는 사상과 령도, 풍모에서 김일성주석, 김정일각하와 꼭 같으신 위인이시다.

2017년은 김일성주석의 탄생 105돐, 김정일각하의 탄생 75돐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우리는 백두산천출위인들의 업적을 칭송하는 여러가지 정치문화행사들을 적극 조직할것이다.

조선인민은 최근년간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들을 련이어 창조하고있다.

김정은각하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조선인민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월간에 즈음하여 행사 진행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월간에 즈음하여 오스트리아 고오스트리아주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청년소조에서 강연회와 영화감상회가 15일에 진행되였다.

오스트리아 고오스트리아주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청년소조 책임자를 비롯한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을 타승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영예롭게 수호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미국은 조선전쟁을 일으킨 도발자이며 조선을 북과 남으로 갈라놓은 장본인이라고 규탄하면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빼저린 교훈을 망각하고 아직도 새 전쟁도발책동에 광분하고있는데 대하여 폭로하였다.

조선인민군은 위대한 김정일각하의 선군혁명령도에 의하여 그 어떤 침략자도 단매에 쳐부실수 있는 현대적인 공격 및 방어수단들을 소유한 최정예강군으로 강화발전되였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시기에 조선인민은 부강번영하는 통일국가를 반드시 건설할것이라는 굳은 확신을 표명하였다.

참가자들은 우리 나라 영화 《명령-027호》를 감상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주체적국방공업의 창설과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가슴깊이 새겨간다. —정천혁명사적지에서—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세계적수준의 문화정서생활거점, 교육거점으로 훌륭히 일떠선 자연박물관과 중앙동물원 준공식 진행

주체적문예출판물의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

문학예술출판사창립 70돐을 맞으며

조국방선을 지켜선 초소의 병사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그리고 새 세대들에게 크나큰 용기와 힘을 주고 희망과 꿈을 안겨주는 혁명적인 문예출판물.

우리의 혁명적인 문예출판물은 지난 기간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아래 당원들과 인민군군인들,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을 당과 수령, 조국에 충실한 참된 인간으로 키우고 혁명과 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데서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왔다.

하기에 창립 70돐을 맞는 문학예술출판사의 전체 일군들과 기자, 편집원, 종업원들은 온 나라 인민들과 함께 주체적문예출판물의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다시금 뜨겁게 되새겨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학예술과 출판보도물은 우리 당의 위력한 사상적무기이며 사람들을 교양개조하고 혁명과 건설에로 불러일으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출판물의 강화발전에 얼마나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였는가 하는것은 문학예술출판사의 창립시기를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해방직후 나라의 정세는 매우 복잡했다. 갓 해방된 우리 조국앞에는 진당, 건국, 건군과 더불어 하루빨리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켜야 할 과업이 나섰다. 더우기 전쟁도발책동에 미쳐날뛰는 미제의 책동으로 조국땅에는 시시각각 엄중한 시련이 도래하고있었다.

바로 그러한 시기에 새 조선의 첫 문학예술출판기관의 탄생을 알리는 장엄한 고고성이 이 땅에 울렸다.

새 조국건설을 위하여 한푼의 자금도 아껴써야 했던 그때 많은 자금도 보내주시며 주체적문예출판물의 창간을 위해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기울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5(1946)년 7월 25일 잡지 《문화전선》의 첫호가 나왔을 때 너무도 기쁘시여 해방된 조국에서 우리 손으로 만든 문학잡지를 보니 감개무량하다고, 해방직후의 실정에서 문학예술부문의 첫 출판물로 《문화전선》이 나오게 된것은 새 조선의 민족문화전설에서 또 하나의 전진으로 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문학예술출판사가 자기의 사명에 맞게 우리 인민들의 정치사상생활과 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하는 문예출판물들을 더 많이 발행하도록 하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조국해방전쟁이 장기성을 띠던 1952년 4월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잡지 《문화전선》을 편집발행하던 문화전선사는 문예총출판사로 강화발전되여 1950년에 비해 20여종에 20여만부에 달하는 문예출판물의 부수를 더 늘여 싸우는 고지의 용사들과 후방의 인민들을 전쟁의 종국적승리에로 불러일으키는데 기여하였다.

그리고 사회주의기초건설을 위한 5개년계획수행의 첫해를 한해 앞둔 1956년에 잡지 《청년문학》, 《조선예술》과 《문학신문》이 련이어 창간되여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출판기관의 면모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세월은 흘러 이제는 반세기가 더 지났지만 오늘도 잡지 《천리마》를 펼쳐보느라면 생각이 절로 깊어진다.

온 나라에 천리마운동이 힘있게 벌어져 그 어디서나 혁신의 새 소식이 전해지고있던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잡지 《천리마》 창간을 몸소 발기하시고 잡지를 사람들 누구나가 좋아하는 대중적이며 종합적인 잡지로 만들기 위해 헌신의 낮과 밤을 보내시였다.

때로는 하늘을 날으는 비행기에서 잡지 《천리마》를 펼쳐보시며 편집방향과 방도를 가르쳐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내각전원회의를 비롯한 국가적인 중요회의에서 편집내용에 대해 따뜻이 이르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다심한 사랑의 손길아래 잡지 《천리마》는 1959년 1월에 창간된 후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여러 부문의 지식들을 게재하여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각계층 근로자 누구나가 손꼽아 기다리는 잡지로 되게 되였다.

1970년대에 이르러 문학예술출판사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일찌기 문학예술출판사를 현지지도하시며 나아갈 길을 밝혀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62(1973)년 1월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에서 출판사가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하도록 하는데서 나서는 강령적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문예출판사(당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적인 문예사상을 널리 해설선전하며 당정책을 민감하게 반영하고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작품들을 많이 출판하여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 적극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때부터 문학예술출판사는 당과 수령의 위대성에 대한 선전을 기본으로 출판선전물들을 편집발행하는 혁명적수령판이 확고히 선 당의 주체적문예출판기관으로서의 자기 사명을 더욱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문예도서로 출판하기 위한 사업이 적극적으로 벌어진 결과 1970년대에 5대혁명가극총보와 《불멸의 력사》, 《충성의 한길에서》의 총서작품들, 우리 시대 인간들의 내면세계를 감동깊이 형상한 장편소설 《새롬》, 《생명수》, 《평양시간》 등 수많은 혁명적인 문예도서들이 편집발행되여 온 나라 인민을 투쟁과 위훈의 한길로 힘있게 떠미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후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문학예술출판사에서는 《불멸의 력사》, 《불멸의 향도》, 《충성의 한길에서》의 총서작품들과 위대한 수령님께서 높이 평가해주신 장편소설들인 《인터우에서》, 《녀당원》, 《철의 신념》 등을 기동적으로 편집발행하였으며 《조선고전문학선집》, 《현대조선문학선집》, 《세계문학선집》, 《세계아동문학선집》을 련이어 출판함으로써 우리 나라 문학예술부문의 종합적출판기지로서의 자기의 면모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로 결속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치는 우리의 진군을 막아보려고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전쟁연습과 경제봉쇄, 심리모략전으로 압박의 도수를 더욱 높이던 2000년대 초엽,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시기 그 어느때보다 조국의 방선초소들을 더 많이 찾으시였고 공장과 농장, 발전소, 양어장 등에 대한 현지지도를 쉬임없이 진행하시였다.

쪽잠과 휘기밥으로 날과 날을 이어가시는 그처럼 바쁘신 때였건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예도서편집을 전문으로 맡아보는 문학예술출판사의 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해주시였다.

오늘도 그 나날에 대한 추억은 이곳 기자, 편집원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2003년 1월 29일부 당보에는 문학예술출판사에서 우리 민족의 국보인 《조선노래대전집》을 출판한데 대한 소식이 실리였다.

3 600여곡의 가요들과 4 000여곡의 가극, 영화노래들, 아동가요들, 100여곡의 민요들을 포함한 근 8 000곡의 노래들이 종합편집된 《조선노래대전집》을 펼쳐보며 많은 사람들은 어찌하여 이 도서의 출판이 인류음악사의 사변으로 되는것인지 깨달았다.

하지만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짊어지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령도의 나날 《조선노래대전집》의 편집발행과 판권하여 얼마나 많은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대책적문제들을 위해 그 얼마나 크나큰 로고를 바치셨는가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많지 못하다.

《조선노래대전집》의 출판과정을 통해 문학예술출판사의 일군들과 기자, 편집원들은 노래는 사람들속에 고상한 정서와 혁명적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위력한 사상정신적무기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다시금 심장깊이 새겼다.

하기에 그들은 1994년부터 2015년까지 수령영생위업주제의 도서는 수백종에 110여만부, 정기간행물은 1만 수천부를 편집발행하여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혁명적량식을 안겨주며 그들의 투쟁을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그리고 또 한분의 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밑에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뜻깊은 해에 백두산3대장군을 형상한 300편의 단편소설들을 편집발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1946년 창립당시 한종의 《문화전선》 잡지로 시작한 문학예술출판사는 오늘 《문학신문》과 잡지 《천리마》, 《조선문학》, 《청년문학》, 《아동문학》, 《조선예술》과 문학, 음악, 미술 등의 도서들을 편집발행하는 강위력한 출판기지로 전변되였다.

지난 70년동안 문학예술출판사에서는 수천종에 1억 천수백만부에 달하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을 형상한 총서작품들과 위대한 장군님의 문학예술령도업적을 소개하는 도서들, 장, 중편소설들, 각종 문학예술도서들을 편집발행하였다. 그리고 수십종에 달하는 전자출판물들을 편집발행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에 떨쳐나선 천만군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문학예술출판사가 걸어온 70년의 력사는 혁명과 건설이 심화되고 반제반미대결전이 치렬해질수록 주체적문예출판물의 발간사업은 그 무엇에 앞서 중요한 문제로 나서게 됨을 보여준 동시에 절세위인들을 모시여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출판물의 혁명적성격이 보다 굳건해지는것임을 뚜렷이 확증한 나날이기도 하였다.

창립 70돐을 맞는 문학예술출판사의 일군들과 기자, 편집원, 종업원들은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다양한 형식의 문예출판물들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 많이 편집발행하는것으로써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불같은 신념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방경찬

총련의 위용을 세계만방에 더욱 힘있게 떨치기 위한 100일집중전에 총궐기하자

총련 본부위원장, 지부위원장, 주요단체 책임자, 교육일군합동회의 진행

【평양 7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총련 본부위원장, 지부위원장, 주요단체 책임자, 교육일군합동회의가 도꾜에 있는 조선회관에서 진행되였다.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 총련 본부위원장들과 일군들, 지부위원장들, 중앙단체 책임일군들과 조선대학교, 조선고급학교 교직원들, 조선신보사 일군들이 합동회의에 참가하였다.

합동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 뜻깊은 올해를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성장한 총련의 위용을 세계만방에 더욱 떨쳐나가는 력사적진군의 해로 빛나게 장식하기 위해 하반년 공격전에 총돌입하여 100일집중전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문제가 토의되였다.

허종만의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총련지부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축전을 보내주신 4돐에 즈음하여 총련지도일군들의 합동회의를 가지게 된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 우리 조국은 주체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새로운 투쟁단계에 들어섰으며 전당, 전국, 전민이 충정의 200일전투를 벌리고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최후승리를 향하여 비상한 속도로 전진하는 주체위업과 더불어 재일조선인운동도 새로운 투쟁단계에 들어섰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해외혁명전우, 해외혁명동지라고 값높이 불러주신 총련일군들이 견결한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앞당겨 열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새해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게 되는 뜻깊은 해이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성장한 총련의 위용을 세계만방에 더욱 힘있게 떨쳐나가야 할 력사적진군의 해입니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을 높이 받들고 년초부터 총련본부위원장회의, 지부위원장회의, 민족교육을 고수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합동회의들을 련이어 조직하여 력사적인 올해 사업을 전투적으로 벌렸으며 지난 6월 27일에는 총련중앙위원회 제23기 제3차회의 확대회의를 성과적으로 진행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번 합동회의의 목적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하여 산악같이 떨쳐나선 조국인민들의 총공격전에 숨결과 보폭을 맞추어 경애하는 원수님의 2015년 5월25일서한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지부경쟁과 새 전성기 애족애국모범창조운동에 더한층 박차를 가하며 중등교육실시 70돐이 되는 올해 민족교육사업에서 혁신을 일으키기 위하여 100일집중전에 전 조직이 총궐기하는데 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지난 5월 하순부터 본부와 지부들에서 벌린 60일집중전의 성과에 토대하여 올해 11월에 열리게 될 총련문화대표자대회-2016(새 전성기 2차대회)을 향한 100일집중전에 돌입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100일집중전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 뜻깊은 올해를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성장한 총련의 위용을 세계만방에 더욱 힘있게 떨치는 력사적진군의 해로 되게 하기 위한 집중전으로서 년초부터 벌려온 투쟁과 60일집중전의 련속이며 2016년을 투쟁의 한해로 장식하기 위한 총공격전이라고 그는 밝혔다.

그는 총련일군들이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령도업적을 가슴깊이 새기고 100일집중전의 순간순간을 헌신적인 투쟁으로 빛내일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총련중앙은 전 조직, 전체 동포들을 100일집중전에로 총동원하며 《기층조직들을 애족애국의 믿음직한 성돌로 굳건히 다지기 위한 지부경쟁》과 모범분회창조운동, 민족교육고수강화를 위한 투쟁, 동포제일주의를 구현하는 사업들을 통일적으로, 립체적으로 추동하기 위하여 100일집중전중앙지휘부를 내온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전체 회의참가자들이 회의목적과 100일집중전의 정책적요구를 깊이 명심하고 뜻깊은 올해의 총동원총격전에 힘있게 돌진할것을 호소하였다.

합동회의에서는 총련 효고현본부 위원장 김춘권, 총련 도꾜도 아다찌지부 위원장 리상석, 총련 오사까부 히가시오사까지부 위원장 김진영, 총련 아이찌현 미나미지부 위원장 김영석,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남주현, 총련 후꾸오까현본부 위원장 리주학, 오사까조선고급학교 교장 윤성진, 조선대학교 학장 장명태, 조선신보사 편집국장 최판익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100일집중전기간 경애하는 원수님과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하며 총련조직들을 원수님께 무한히 충직한 대오로 더욱 튼튼히 꾸려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총련대오의 일심단결과 동포들사이에 오가는 따뜻한 정속에 총련의 힘이 있고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도 있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어 동포제일주의를 신념화, 체질화하고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적극 벌려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재일조선인운동의 생명선인 민족교육을 고수하고 더욱 발전시키며 학생들에 대한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하여 새 세대들을 숭고한 정신과 풍부한 지식을 겸비한 재일조선인운동의 핵심골간으로, 애족애국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들로 더 잘 키울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허종만의장이 합동회의를 결속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심장깊이 새기고 뜻깊은 올해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성장한 총련의 위용을 세계만방에 더욱 힘있게 떨쳐나갈것을 열렬히 호소하였다.

전체 회의참가자들은 희세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최후승리의 령마루를 향하여 질풍노도쳐나아가는 조국인민들과 발걸음을 맞추어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었다.

합동회의에 이어 100일집중전추진을 위한 총련 현본부 위원장들의 협의회가 진행되였다.

시 묶음

최후승리의 7.27이 앞에 있다

태양의 그 존함 승리의 기치

리 창 식

전쟁 3년
천백이십여일-
철과 불의 낮과 밤을 지나
조선이 맞이한 7월 27일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
력사의 순간을 앞에 무시다

짐무락우엔
우리의 승리를 선언할 전승문전
미국의 비참한 패배를
세계에 고할 그 시각
백두의 흰눈같이 눈부신 원수복 입으시고
환하게 웃으시는 강철의 령장

미제를 눌러던진 전선산발들이
그이께로 키돋움하며 파도쳐오고
이제 승리의 축포성 터져오를
이 나라의 거리와 마을들을
그이는 한가슴에 뜨겁게 안으시나니

이날을 위해 헤쳐온
불의 산 피의 강은 그 얼마더냐
애끓은 청춘들 한몸바쳐 열어간 돌격로
승리의 고지우에 휘날린 군기들
오, 천만이 그이와 하나의 심장으로 고동치며
한치한치 열어온 혈전의 날과 날들

한명 또 한명 다 불러보고싶으시다
1211고지의 화선용사들
전선에 총포탄을 보장한 군자리사람들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부르며
최고사령부를 찾아오던
미더운 병사들과 잊지 못할 법동농민…

활달하신 필체로 그이 펜을 달리시자
천리전선에 눈부신 채광 휘뿌리며
전승의 문건우에 빛나는 글발
7.27우에 찬연한
위대한 태양의 존함이여

6월의 불로화가 터졌던 그날로부터
위대한 전승의 7월까지
최고사령부의 불은 화살표와 함께
원쑤격멸에로 온 나라를 부르며
승리의 기치로 나붓긴 존함이여

얼마나 많은 유명무명의 전사들이
그이를 목메여 부르며
피로 적은 맹세문을 가슴에 품고
백병전에로 나아갔던가
육탄으로 적진속에 뛰여들며
《김일성장군 만세!》를 소리높이 웨쳤던가

태양의 그 존함은
이 땅에 승리의 기적을 안아온
위대한 백승의 기치
온 세계가 우러르는
영웅조선의 찬란한 빛발

7.27 력사의 그날과 더불어
이 나라 인민은
존엄높은 승리자로 영원히 살리라
오, 김일성
불멸할 그 존함은
이 조선의 해와 달우에 무궁토록 빛나리라

피젖은 기발

박 현 철

불길속 몇천리
포화속 몇만리를 헤쳐왔는가
이백일흔여군데
총탄에 뚫리고 파편에 찢긴
전승기념관의 피젖은 기발

귀전을 때리며 총포탄 휘는 소리
고지를 진감하는 만세의 함성
원쑤의 철조망 몸으로 덮으며
불뿜는 화점 가슴으로 막으며
나아가는 대오앞에 휘날리던 공화국기발

기수는 쓰러져도
기발은 순간도 내리울수 없어
전우의 손에서 손으로 넘겨지며
탄막을 헤쳐가던 전사들 모습이여

그 몇번째 기수였느냐
가슴에 열두발 총탄을 맞고
피젖은 손으로 이 기발을 넘겨주며
불타는 눈빛으로
조국의 푸른 하늘 바라보던 애끓은 병사는

가슴치누나
람홍색 이 기폭에 두볼을 부비고
최후결전에로 웃으며 나아가던 용사들
락동강모래불을 그러안고 숨지며 남긴 그 부탁
—공화국기발을 기어이 저 남해에!…

정녕 기발은 무엇이여서
돌격의 앞장에서 들고 나가며
우박치는 총탄을 한몸으로 다 받으며
스스로 기수됨을 영광으로 알았더냐

피로 물들일지언정
결코 내리울수 없는 이 기발은
수령님 주신 기폭진 땅이였고
민주학원의 희망찬 종소리였고
난생처음 맛본 인간다운 삶
사랑하는 어머니조국이였다

죽어 이 기발 덮고 간 용사는 있어도
살아 이 기발 손에서 놓은이 없어라
그것은 피먹이는 공화국의 힘
그것은 나래치는 승리의 상징
오늘도 세계의 하늘가에 나붓기는 우리의 존엄

총탄에 뚫리고 파편에 찢긴
피젖은 저 기폭이래서
이 나라 인민이 영웅으로 자랐거니
우리의 국기여
피젖은 기발이여
그대는 오늘도 수천만 아들딸들을
조국수호의 제일기수로 불러세우고있어라

병사는 영웅홀을 걷는다

조 광 원

길으면 몇발자국
영웅홀은 길지 않아도
조선인민군 병사 나는
전승기념관의 이 홀을
오래도록 걷고걷는다

나를 마주보는 영웅들의 사진
한사람 또 한사람
너무도 정범하고 소박한 이들이
력사에 처음으로 미제를 꿇어앉힌
위대한 영웅세대란 말인가

리수복, 강호영, 조근실, 안영애…
10대 20대에
조국에 청춘을 바친 이들의 삶은
위훈의 열망으로 가득찬 병사의 이 가슴에
동갑나이로 들어앉아라

한걸음을 내짚으면
조국통일성전에서 막아야 할
불뿜는 적화점이 내 가슴에 다가서고
또 한걸음 내짚으면
적땅크를 맞받아나아가던
영웅의 수류탄류음이 이 손에 쥐여진다

전화의 그날
조국의 운명을 목숨바쳐 지켜낸 전승세대
미제에게 패배의 공포를 주고
우리에겐 승리의 자부를 주며
오늘도 이 영웅홀에서
새 세대 병사들을 자래우고있나니

울리고있어라
《조국의 고지는 나의 고지》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최후의 순간에 남긴 그 웨침들이
가장 아름다운 생의 노래로
이 가슴에 메아리치는 듯이여

위대한 년대가 낳은 우리의 영웅들
별처럼 빛나는 그 고귀한 생앞에
피끓는 청춘의 심장 높뛰는 여기
산악같이 일어서는 조국수호의 의지없이
내 어이 지나갈수 있으랴

이제 가야 할 병사의 훈련길에
영웅들의 돌격로는 이어지리라
조국위해 불타는 병사의 날과 달을
영웅들의 불멸할
최후의 그 순간들에 세우고 내 살리라

영웅홀은 길지 않아도
병사가 가는 길에 끝나지 않는 홀이여
여기를 지나 전장으로 달려간 병사는
영웅되여 조국통일광장에 들어서리라
아, 병사는 영웅홀을 걷는다

옛 땅크사냥군의 무훈담

김 동 훈

함정골에 처박힌 양키제국의 불굴인가
로획무기전시장 휘넓은 마당에
죽지 부러진 적기들
나자빠진 땅크들
그앞에 떠들썩한 웃음소리 웃음소리

코를 박고 주저앉은 미국놈땅크 가리키며
이제 바로 내가 잡은 열세번째 땅크라
한바탕 전투담을 펼쳐놓은 로병아바이
화선의 꼬마병사 옛시절로 돌아온듯

그 어이 잊을소냐
매복전의 첫밤
감쪽같이 묻어놓은 지뢰에 걸려
폭음과 함께 나뒹굴던 적땅크들
메돼지마냥 후려잡던 그날의 희열이 비끼여
신바람난 그 모습

돌을수록 후련하구나
제 죽을줄 모르고 기세가 등등
땅크타고 기여들던 워커란 놈도
자기들의 손에서 황천객이 되였다고
그날엔 보란듯이 적땅크를 타고앉아
북소리 들썩쿵 화선오락회도 벌렸다고

오는 놈은 맞받아 잡고
뛰는 놈은 쫓아가 잡고
적진에 웅크린 놈은 찾아가 잡고
전쟁 3년간에 미국놈땅크를
한두름이나 잡아냈다는
땅크사냥군

통쾌하여라 전선마다
우리 수령님 떨치신
가지가지 신묘한 전법에 걸려
하늘에선 적기들이 부나비마냥 타버리고
바다에선 적함들이 불귀신되였으니
날마다 늘어난 과철더미들
통채로 아메리카의 무덤산을 이루었구나

이허라
이런 화선의 무훈담속에
태일의 전승신화들이 또 태여나리니
새 세대 병사 우리의 강철주먹에
최후결산의 전리품
미국땅이 벌써 쥐여져있다네

승전의 뢰성

신 문 경

최강의 핵억제력으로 눌러던지고
승전의 날과 날을 안아오시는 우리 원수님
그이의 기상은
절음절음 미제를 다붙괴시던
선군령장 김정일장군의 담력과 배짱

승리의 전통은 이렇게 이어진다
미제의 중순양함을 수장해버린 그 바다에서
수중탄도탄들을 련이어 쏘아올리며
지구를 뒤흔든 수소탄의 폭음으로
미제에게 영원한 패배를 선고하며

보총을 들고 원자탄과 싸워 이긴
전승세대의 그 존엄은
천만의 가슴에 맥박로 높뛰치니
1950년대의 불굴의 정신으로
내 조국은 70여년 미제를 족치며
핵강국의 전렬에 들어선 강대한 나라

미제를 발밑에 눌러던지고 나아가는
내 조국의 힘은 날마다 장해진다
승리를 향해 돌진하는 주체조선의 공격은
그 어떤 무기로도 막지 못하리
그 어떤 속도로도 따라서지 못하리

오, 전승의 축포성인양
천만군민의 가슴에
승리자의 희열을 안겨주는 승전의 뢰성
영웅조선 이 땅에
최후승리의 7.27을 안아오는 그날까지
그 장쾌한 정의의 폭음은
끝없이 울리고 울리리라

미제를 쳐부신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의 얼굴마다에 긍지와 자부심이 넘친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전승컵 전국태권도강자경기대회 폐막

지난 7월 15일에 개막되였던 전승컵 전국태권도강자경기대회가 폐막되였다.

이번 경기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은 우리 민족의 정통무도인 태권도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할 열의안고 정시에 련마해온 높은 기술과 투지를 남김없이 발휘하여 좋은 성과들을 거두었다.

자강도태권도선수단(남자), 평양시태권도선수단(녀자) 선수들이 몸무게급에 관계없이 진행된 태권도맞서기강자경기에서 1등을, 평안남도태권도선수단(남자), 평양시태권도선수단(녀자)이 태권도단체맞서기경기에서 1등을, 평양시, 황해북도, 량강도, 남포시태권도선수단, 중앙체육학원 남, 녀선수들이 몸무게급별태권도개인맞서기경기에서 1등을 하였다.

바둑개인경기에서는 조선태권도위원회선수단 남, 녀선수들이, 바둑 남, 녀단체경기에서는 평양시태권도선수단과 함경남도태권도선수단이, 바둑혼성복식경기에서는 함경남도태권도선수단 선수들이 각각 우승하였다.

폐막식이 24일 혜산시에서 진행되였다.

리성국 량강도인민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 체육인들, 혜산시안의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단체와 선수들에게 우승컵과 메달, 상장이 수여되였다.

김경호 조선태권도위원회 위원장이 폐막연설을 하였다.

그는 전체 군대와 인민이 뜻깊은 올해를 우리 혁명의 최전성기로 빛내이기 위한 충정의 200일전투의 대진군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는 시기에 진행된 이번 경기대회가 민족의 자랑인 태권도를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데서 의의있는 계기로 되였다고 말하였다.

모든 선수, 감독들이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자신들의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침으로써 민족체육종목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외국선박선원들의 경축모임

남포항에서 진행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3돐에 즈음하여 외국선박선원들의 경축모임이 23일 남포항에서 진행되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남포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모임장소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로씨야국적선박 《뜨로체쏘르흘류스찐》호의 선장, 선원들이 참가한 모임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타승하고 떨망의 시초를 열어놓은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조선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나라를 수호하시였으며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건설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온 세계는 탁월한 수령으로 끝없이 흠모하고있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조선은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확신성있게 전진하고있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위업은 빛나게 계승완성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전쟁로병들의 추억—우리는 승리를 굳게 믿고 싸웠다

결전의 나날에 펼쳐진 콩풍경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지휘관들은 병사들을 맏형과 맏누이, 진정한 전우의 심정으로 따뜻이 돌보며 병사들을 위하여 신발창이 닳도록 뛰고 또 뛰는것을 체질화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귀한 말씀을 새길 때면 나의 가슴속에는 잊지 못할 전화의 나날이 어제일처럼 떠오른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1211고지방어전투때 나는 조선인민군 제2군단 제13보병사단의 23련대 1대대 3중대 특무장으로 복무하였다.

조국해방전쟁을 취급한 영화들에는 종종 푸수하고 인정미넘치는 나이지숙한 특무장들이 등장한다. 그러나 나는 20대에 갓 들어선 나이에 백여명의 병사들의 생활을 책임진 특무장으로 1211고지방어전투에 참가하게 되였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하여도 김일성종합대학의 학생이였던 내가 특무장이 되리라고는 사실 전혀 상상해보지 못하였다. 더우기 1211고지방어전투때처럼 특무장의 임무가 얼마나 무겁고 영예로운가를 절감한적은 없었다.

적들은 1951년 8월부터 11월사이에 진행된 《하기 및 추기공세》때는 물론 그후에도 1211고지와 그 린접고지들을 지켜선 인민군부대들의 물자수송로를 차단하기 위해 포사격을 들이대였다.

적들은 수천문의 각종 포들로 1211고지뒤계선의 넓은 공간에 쏘구역을 정하고 하루도 멈추지 않고 무차별적인 포사격을 감행하였다.

고지에서는 하루에도 십여차례의 파도식공격을 강행하는 적들을 향해 전우들이 손에 자개바람이 일도록 수류탄을 던지고 총탄을 날리였다. 그러면서도 전우들은 우리 후방부문 전사들에게 먹을것보다 탄약을 요구하였다.

당시 우리가 탄약과 수류탄을 보장하기 위해 적의 포사격이 미치지 않는 수십리길을 에돌아야 하는 우회로를 택하였다면 고지에 탄약을 원만히 공급할수 없었다.

우리는 고지의 전우들과 한전호에 선 심정으로 주저없이 쏘구역을 달리고달리였다.

그러나 우박치는 탄우속을 뚫고 수십리길을 달려 탄약을 날라오는 어려움보다 전우들에게 푸짐한 식사를 보장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으로 하여 나는 괴스러움을 금할수 없었지만 꿀비쏟아지는 당시 형편에서는 어찌는수가 없었다.

더우기 1211고지방어전투때처럼 고지의 전우들과 한전호에 선 심정으로 주저없이 쏘구역을 달리고달리였다.

그러나 우박치는 탄우속을 뚫고 수십리길을 달려 탄약을 날라오는 어려움보다 전우들에게 푸짐한 식사를 보장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으로 하여 나는 괴스러움을 금할수 없었지만 꿀비쏟아지는 당시 형편에서는 어찌는수가 없었다.

더우기 1211고지방어전투때처럼 특무장의 임무가 얼마나 무겁고 영예로운가를 절감한적은 없었다.

적들은 1951년 8월부터 11월사이에 진행된 《하기 및 추기공세》때는 물론 그후에도 1211고지와 그 린접고지들을 지켜선 인민군부대들의 물자수송로를 차단하기 위해 포사격을 들이대였다.

적들은 수천문의 각종 포들로 1211고지뒤계선의 넓은 공간에 쏘구역을 정하고 하루도 멈추지 않고 무차별적인 포사격을 감행하였다.

고지에서는 하루에도 십여차례의 파도식공격을 강행하는 적들을 향해 전우들이 손에 자개바람이 일도록 수류탄을 던지고 총탄을 날리였다. 그러면서도 전우들은 우리 후방부문 전사들에게 먹을것보다 탄약을 요구하였다.

당시 우리가 탄약과 수류탄을 보장하기 위해 적의 포사격이 미치지 않는 수십리길을 에돌아야 하는 우회로를 택하였다면 고지에 탄약을 원만히 공급할수 없었다.

우리는

일본은 왜 쾌재를 부르는가

최근 일본내각관방장관이 자국정부는 《싸드》의 남조선배비를 지지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은 미국과 남조선이 결정한 《싸드》배비문제를 놓고 이러쿵저러쿵 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싸드》의 남조선배비결정으로 언론이 축가마끝듯 하고 지역나라들사이에 대립이 격렬해지는 때에 흘러나온 이러한 발언은 불는 불에 키질하며 피속을 챙기려는 일본의 흉심을 드러낸것이라고밖에 달리 볼수 없다.

당사자가 아닌 나라들이 《싸드》배비문제의 시비를 따지는것이 잘못이라고 한 그의 론법대로 한다면 다름아닌 제3국인 일본정부가 미국과 남조선이 결정한 문제에 지지표를 던진것자체가 잘못이 아닌가. 저들은 남의 일에 머리를 들이밀어 마음대로 립장표명을 하면서도 다른 나라들은 그럴수 없다는 식의 자가당착적인 론리는 누구에게도 통할수 없다.

《싸드》의 남조선배비는 결코 미국과 남조선사이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조선반도지경을 벗어나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보장과 관련되는 문제이다.

미국이 《싸드》의 남조선배비가 우리의 《미싸일위협》을 막기 위한 방어용이라고 구차스러운 변명을 해대지만 여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없다.

《싸드》의 남조선배비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군사적패권을 거머쥐려는 미국의 흉악한 야망과 상전을 등에 업고 북침을 이루어보려는 괴뢰들의 극악한 동족대결책동의 직접적산물이다.

《아사히신붕》과 《요미우리신붕》, 《니혼게이자이신붕》, 교도통신과 지지통신을 비롯하여 일본의 언론들은 《싸드》의 남조선배비가 현실화되는 경우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전략적균형이 파괴되여 엄중한 후과를 초래할수 있다고 한결같이 예평하고있다.

지역의 위협천만한 사태발전을 두고 국제사회가 커다란 우려를 표시하고있는 지금 유독 일본정부만이 송이 나서 지지요 뭐요 하고있으니 이처럼 온당치 못한 처사가 어디에 있는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이 시시각각 거대한 핵전쟁마당으로 전변되여가고있는데 대해 패재를 부르는 일본의 흉심은 다른데 있지 않다. 70여년전에 력사의 시궁창에 처박힌 군국주의망령을 되살려 어떻게 하나 《대동아공영권》의 옛 꿈을 실현하자는것이다.

전쟁에로 치닫고있는 조선반도정세를 악용하여 어부지리를 얻자는것은 력대로 미국상전에게 붙어 제 볼장을 보아온 일본의 악삭바른 타산이다. 지난날 해외침략야망실현에 미쳐날뛰다가 패망한 군국주의일본이 부활되여 재침에로 나갈수 있게 된것도 미국을 등에 업었기때문이였다.

미국과 일본은 태평양전쟁시기 적대관계, 교전관계에 있었다. 많은 미국인들은 오늘도 1941년 12월 일본군의 불의적이고 맹렬한 공격으로 진주만기지가 불바다로 되고 태평양함대의 전투능력이 마비되였던 《진주만의 비극》을 두고 통분해하고있다.

한편 일본인들은 미국의 원자탄공격으로 히로시마와 나가사끼가 당한 참혹한 피해를 지금까지 잊지 않고있다. 이러한 미국과 일본이 손을 잡게 된것은 바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지배권확립에 대한 공통된 피해관계때문이였다.

랭전이 종식되고 《쏘련의 위협》이라는 허구가 사라진 현실은 미국과 일본으로 하여금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임의의 시각에 군사작전을 벌리고 그를 합리화할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야 할 필요를 느끼게 하였다. 그래서 이전에 《일미방위협력지침》에 박아넣은것이 조선반도유사시에 대응한다는것이였다.

지난해에는 《일미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함으로써 《미군지원》이라는 구실밑에 일본《자위대》를 세계 그 어느곳에나 전면출동시킬수 있게 하였다.

조선반도정세가 긴장될 때마다 일본에서 미일합동군사연습이 맹렬히 벌어지고있는것은 미제가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하는 경우 일본이 위험한 침략세력으로서 또다시 여기에 가담하려 한다는것을 실증해준다.

지금 일본국회에서는 《북조선미싸일기지에 대한 선제공격》을 운운하는가 하면 지어 일본단독의 《적기지타격》론까지 공공연히 뛰여나오고있다.

일본에서 국가적인 성격을 띠고 광란적으로 벌어지는 군국주의망동은 일제가 《동방의 맹주》로 군림하겠다며 침략의 칼을 벼리던 때를 방불케 한다.

미국, 남조선과 정보공유합의서를 체결하여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정탐행위를 로골적으로 확대강화하고있는 일본이 《싸드》의 남조선배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리면에는 날로 악화되는 정세변화를 저들의 군사대국화책동을 정당화, 합리화하는 기회로 삼으며 궁극적으로 재침의 로문을 열자는데 있다.

언제나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긴장을 갈망하면서 미국을 등에 업고 군국주의부활책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는 일본반동들의 교활한 악습은 여지없이 드러났다.

현실은 가장 공정하고 엄격한 재판관이다. 재침은 제2의 패망, 자멸의 길이다. 과거 일제의 침략자가 패망으로 막을 내렸듯이 부활된 군국주의일본의 패일도 달리는 될수 없다.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남의 땅을 강탈하고 지배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

예로부터 입은 재앙을 몰아오는 문이라고 하였다. 일본은 허바탕을 마구 놀려 세인을 우롱할것이 아니라 고약한 악습이 돌이킬수 없는 재난을 몰아올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새겨야 한다.

배 금 희

북침기도를 드러낸 호전적객기

남조선괴뢰들이 《북의 위협》에 대해 계속 떠들며 그에 대비한다는 구실밑에 외세와 야합하여 군사적긴장과 전쟁책동에 날로 더욱 광분하고있다.

얼마전 하와이주변에서 미국주도하에 벌어진 《림팩》합동군사연습에 코를 들이민 괴뢰호전광들은 《북의 잠수함탄도미싸일위협대비》를 운운하며 미, 일상전들과 함께 우리 공화국을 봉쇄하고 해상으로부터 타격하기 위한 훈련에 미쳐날뛰였다. 괴뢰들은 미제침략군공군무력과 함께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조난조종사구출훈련도 감행하였다. 한편 미해군의 초대형핵잠수함 《오하이오》호를 부산항에 끌어들이는 도발적망동도 부렸다.

북남관계가 정치군사적대결의 극한점에 이르러 조선반도에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침예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는 지금 련이어 벌어지는 내외호전광들의 군사적광란은 절대로 스쳐지날수 없다. 그것은 긴장완화와 평화를 한사코 반대하면서 우리 공화국을 무력으로 압살해보려는 위험천만한 전쟁도발기도의 발로이다.

그 누구의 《도발》과 《위협》에 대해 떠들며 각종 전쟁연습을 끊임없이 벌려 우리에게 군사적압력을 가하며 핵선제공격준비를 다그쳐 기어코 북침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것은 미국과 괴뢰패당의 변함없는 흉심이다. 이번에 남조선괴뢰들이 외세와 공모결탁하여 벌린 《림팩》합동군사연습과 조난조종사구출훈련도 바로 그에 따른것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해마다 감행하고있는 《림팩》합동군사연습의 주되는 목표는 우리 공화국이다. 괴뢰들이 그 무슨 《북의 잠수함탄도미싸일위협》에 대해 떠들었지만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해상봉쇄와 선제공격을 노린 《림팩》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성격을 가리울수 없다.

괴뢰패당이 미제침략군과 함께 벌린 조난조종사구출훈련도 북침선제공격기도에 맞게 전반적인 전쟁준비의 최종완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도발소동이다. 얼마전에 있은 남조선미국해병대련합훈련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지금 내외호전광들이 벌려놓고있는 전쟁연습들은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종심과 중요거점들에 대한 정밀타격과 기습점령능력을 숙달하기 위한것으로 일관되고있다.

더우기 머지않아 남조선에서는 미제침략군과 괴뢰군의 방대한 병력이 투입되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이 감행되게 된다.

이러한 속에 박근혜패당이 미국과의 북침전쟁연습을 쉴새없이 벌리면서 군사적긴장을 고조시키고있는것은 매우 위험하다. 날로 강화되고있는 미국과 괴뢰들의 북침전쟁연습은 임의의 시각에 실전으로 번져질수 있다.

괴뢰패당이 미핵잠수함 《오하이오》호를 부산항에 끌어들인것도 그것을 말해준다. 《오하이오》호가 남조선에 기어든 목적은 우리에 대한 군사적위협과 공갈의 도수를 높이면서 북침핵선제타격태세를 완비하는데 있다. 얼마전 미국은 《정밀공습작전》계획이라는것을 공개하였다. 그것은 《6대전략자산》들을 통해 우리의 핵시설을 비롯한 전략적군사대상물들을 불의에 동시타격하기 위한 극히 모험적인 북침각본이다.

미국의 《정밀공습작전》계획이 내외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있는 때에 미싸일공격능력과 스텔스기능은 물론 특수전병력을 수중침투시킬수 있는 장비까지 갖춘 미국의 초대형핵잠수함 《오하이오》호가 부산항에 기어든것은 엄중한 사태를 예고해주고있다. 남조선괴뢰들이 미국과 공모결탁하여 우리에 대한 군사적압박에 발악적으로 매달리면서 그것을 북침전쟁에로 이어가려고 미친듯이 헤덤비고있다는것은 더 론할 여지도 없다.

미친개에게는 몽둥이찜질이 제격이다.

미제의 날강도적인 침략야망과 박근혜역적패당의 전쟁기도가 날로 명백해지고있는 지금 우리가 적대세력의 도발책동에 대처하여 강력한 자위적대응조치를 취해나가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만일 남조선괴뢰들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면서 미국과 야합하여 북침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침략자들을 모조리 격멸소탕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하고야말것이다.

북침전쟁도발에 환장이 되여 분별없이 헤덤비는자들에게는 비참한 죽음과 종국적멸망밖에 차례질것이 없을것이다.

심 철 영

중국전문가
남조선에 대한 《싸드》배치결정은 《작은 나토》의 형성을 의미한다고 주장

중국절강대학의 한 연구원이 최근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고고도미싸일방위체계 《싸드》배치결정을 비난하였다.

그는 《싸드》배치결정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재균형전략이 종심을 향해 적극 추진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으며 남조선당국이 중국, 로씨야와 전략적으로 대결하고 동아시아의 전략적균형이 파괴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스스로 미국의 군사동맹에 완전히 종속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고 까밝혔다.

이것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미국이 주도하는 《작은 나토》가 이미 형성되였다는것을 의미한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온 겨레는 침략자와 매국역적들을 신성한 강토에서 쓸어버리기 위한 거족적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자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담화

지금 남조선에서는 미국의 침략적인 《싸드》배치를 반대하는 각계각층의 대중적투쟁이 련일 격렬하게 벌어지고있는 가운데 그 직접적피해자인 농민들이 더욱 결사적으로 항거해나서고있다.

특히 《싸드》배치지역으로 선정된 경상북도 성주의 농민들은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성주 《싸드》배치저지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죽어도 싸드배치 수용할수 없다!》, 《목숨을 건 결사항전을 하자!》 등의 구호들을 웨치면서 군민궐기대회와 초불시위, 삭발투쟁, 서명운동 등을 강력히 전개하고있다.

얼마전에는 수천명의 성주군 주민들이 서울에서 대중적인 시위를 벌리면서 괴뢰패당의 《싸드》배치결정을 주호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절연한 의지와 투쟁기세를 과시하였다.

성주군민들의 투쟁에 전국농민회총련맹을 비롯한 남조선 각지의 농민단체들과 농민들이 적극 지지하고 합세해나서면서 《싸드》반대투쟁은 더욱더 확대되고있다.

《싸드》배치를 반대하는 남조선농민들의 투쟁은 농민들의 생존권을 유린하고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삶의 터전을 미국의 침략적인 핵전쟁기지로 서슴없이 내맡긴 박근혜패당에 대한 참을수 없는 증오와 분노의 폭발이며 나라와 민족의 피익을 외세에 팔아먹는 특등친미매국역적들을 단호히 쓸어버리려는 남조선인민들의 거세찬 항거의 분출이다.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는 남조선농민들의 삶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고 온 겨레에게 핵전쟁참화를 들씌우려는 박근혜패당의 《싸드》배치책동을 천추에 용납 못할 반민족적범죄로 락인하면서 이를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알려진바와 같이 경상북도 성주의 근 5만명의 주민들은 대부분 농사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있다.

성주에 《싸드》가 배치되게 되면 군주민의 절반이상이 밀집되여있는 읍지구의 수많은 사람들은 물론 이 지역 농민들의 생명안전과 생계에 엄중한 위협이 조성되고 그로 인한 경제적손실도 막대하다.

기지주변 수㎞인의 농경지에서 농사를 지을수 없게 되고 농산물가격의 하락과 《싸드》에이다의 강력한 전자기파와 소음, 각종 유해물질루출 등으로 성주주민들이 입게 될 피해는 이루 헤아릴수 없다.

지금 괴뢰패당이 《싸드》가 인체에 주는 영향이 없다느니, 《국민안전과 생명을 위한것》이라느니 뭐니 하고 떠들면서 괴뢰국방부관계자들을 련속 성주에 파견하는 놀음을 벌리고있지만 그것은 격노한 민심을 녹잦히고 저들의 추악한 사대매국적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오그랑수에 불과하다.

더욱 격분을 자아내고있는것은 70여년간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에게 수많은 군사기지를 제공하고 강토를 황폐화시킨것도 부족하여 또다시 성주까지 미군기지로 섬겨바친 괴뢰역적패당이 《외부세력개입》을 떠들면서 성주주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을 파쑈권력을 동원하여 탄압할 범죄적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있는것이다.

지금 박근혜패당은 《불가피한 조치》니 뭐니 하면서 분노한 민심을 달래는 한편 괴뢰경찰을 내세워 비렬한 수사놀음을 강행함으로써 어떻게 하나 남조선에서 날로 고조되는 《싸드》반대투쟁을 가로막아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그러나 외세에 추종하여 남조선전역을 조선반도와 세계제패를 위한 미국의 침략적인 핵전초기지로 더욱 전락시키고 남조선인민들에게 참을수 없는 치욕과 불행을 강요한 저들의 추악한 사대매국적정체를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

제반 사실은 박근혜패당이야말로 하내비처럼 섬기는 미국을 위해서라면 남조선인민들의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무참히 짓밟고 소중한 조국강토도 서슴없이 외세에 섬겨바치는 극악한 친미매국노이며 온 겨레가 하루빨리 매장해버려야 할 민족공통의 재앙덩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농민들이야 죽든말든 오로지 외세에 빌붙어 나라와 민족의 리익을 팔아먹는데 환장한 박근혜패당을 그대로 둔다면 남조선농민들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은 더욱더 커지게 될것이며 온 겨레가 핵전쟁의 재난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

내외의 강력한 규탄배격에도 눈섬하나 까딱하지 않고 미국의 《싸드》를 기어이 끌어들여 성주를 미국의 군사기지로 서슴없이 내맡긴 박근혜패당이 이제 제2, 제3의 성주를 또다시 섬겨바치며 친미매국의 명줄을 이어보려고 최후발악할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남조선농민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은 박근혜패당을 매장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극악한 친미역적들을 력사의 무덤에 단호히 처박아야 하며 소중한 삶의 권리와 터전을 자기의 힘으로 쟁취하여야 한다.

해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생존의 권리를 지키고 미제침략군기지를 철폐하기 위해 과감히 떨쳐나선 남조선농민들과 함께 미제와 괴뢰역적패당을 쓸어버리기 위한 거족적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것이다.

주체105(2016)년 7월 24일
평 양

공동투쟁속에서 발전하는 ‖조선—수리아친선의 뉴대‖

오늘은 우리 나라와 수리아사이에 외교관계가 설정된 때로부터 50년이 되는 날이다. 공식적인 외교관계설정은 쌍무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키고 두 나라 인민의 친선의 뉴대를 강화하는데서 획기적인 사변으로, 리정표로 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뜻깊은 이날에 즈음하여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인 바샤르 알 아싸드각하와 축전을 교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축전에서 다음과 같이 천명하시였다.

《외교관계설정후 지난 50년간 우리 두 나라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공동투쟁속에서 친선과 협조의 뉴대를 강화발전시켜왔습니다.》

50년이란 세월은 결코 짧지 않다. 반세기이다. 이 기나긴 나날 국제정치무대에서는 한두마디 말로 다 설명할수 없는 복잡한 사태들이 일어났고 그로 하여 적지 않은 나라들의 새 생활창조와 번영을 위한 투쟁은 엄혹한 도전과 난관에 부닥쳤다.

그런 속에서도 조선, 수리아 두 나라는 반제투쟁의 한전호에서 나라의 자주권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려왔다. 비록 두 나라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있지만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서로 고무지지하고 련대성을 표시하였으며 친선과 협조의 뉴대를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왔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에서 틀어쥐고 마련하시고 가꾸어주신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매우 공고하고 훌륭하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우리의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는 하페즈 알 아싸드전 대통령과 맺은 동지적우의를 언제나 소중히 여기시였으며 조선수리아친선을 공고발전시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세월은 멀리 흘러 세대와 세기가 바뀌였지만 조선수리아친선은 위대한 선대수령들의 유훈대로 계속 강화발전되고있다.

주체102(2013)년 7월 24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한 아브둘라 알 아흐마르 아랍사회부흥당 부총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수리아아랍공화국대표단을 접견하시고 친선적이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접견을 여러차례 받은 아브둘라 알 아흐마르 부총비서를 만나게 되여 반갑다고 하시면서 수리아당과 정부에서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 경축행사에 대표단을 파견한것은 우리 인민에게 커다란 고무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높이 받들어 조선수리아친선협조관계를 중시하며 더욱 확대발전시켜나가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이며 의지이다.

수리아인민은 당의 선군정치, 병진로선을 높이 받들고 미제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면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투쟁해나가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적극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내외적대세력의 침략과 테로를 물리치고 나라의 자주권과 령토완정을 수호하기 위한 수리아정부와 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변함없는 지지와 굳은 련대성을 보내고있다. 최근 수리아는 바샤르 알 아싸드대통령의 옳바른 령도밑에 군대와 인민이 단합된 힘으로 높은 희생성과 완강성을 발휘하여 반테로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있다.

수리아정부는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것을 선차적인 과업으로 내세우고 그 실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주택지구건설을 더욱 확대하고 민족화폐의 지위를 공고히 하며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대책들을 세워나가고있다. 또한 반테로투쟁에서 희생된 군인들의 가족들과 장애자들을 잘 돌봐주기 위한 사업에도 힘을 넣고있다.

조선인민은 수리아인민이 바샤르 알 아싸드대통령의 두리에 공화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테로를 반대하며 인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하고있는 성과를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열렬히 축하하고있다.

조선수리아친선협조는 를력불가담운동의 단결과 위력을 강화하고 정의로운 국제질서를 세우는데 크게 기여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정부와 인민은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반제자주를 위한 공동투쟁의 한길에서 수리아아랍공화국 정부와 인민과 언제나 함께 있을것이며 수리아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변함없는 지지와 련대성을 보낼것이다.

리 경 수

오늘의 세계

항공기판매금지조치에 비낀 검은 속심

랑면성은 미국의 제실적인 속성이다. 하기에 세계는 미국의 랑면주의저술책에 높은 각성을 가지고 대하고있다. 최근시기 미국과 이란사이에 항공기판매문제를 놓고 벌어진 대립과 마찰이 그를 잘 말해주고있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이란은 자기의 립장을 고수하면서 미국 등 여러 나라들과 협상을 벌려 핵문제와 관련한 합의를 성사시켰다. 그때로부터 1년이 지났다.

이란은 지금 나라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방으로 노력하고있다. 단적실례로 이란은 서방의 오랜 경제제재로 말미암아 자기 나라의 항공기들이 대부분 낡은것과 관련하여 새 항공기들을 시급히 구입하려 하고있다. 그러한 조치로 지난 1월 이란은 미국의 보잉회사로부터 항공기들을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에 착수하였으며 결과 6월 이란항공당국과 보잉회사와의 비행기판매와 관련한 기본적인 합의가 이룩되였다.

문제는 그 다음에 있었다.

남이 잘되는것을 배아파하는 미당국이 가만 있을리 만무하였다. 심기가 몹시도 뒤틀린 미국은 얼마전 이란과 맺은 비행기판매계약을 금지시키는 자세를 취하였다.

미국회 하원에서는 이란에 제공되는 항공기가 이란이슬람교혁명근위대에 의해 사용될수 있다느니, 한도미싸일이나 로케트포운반용으로 용도변경될수 있다느니 뭐니 하는 헐담을 늘어놓으며 항공기판매를 금지시킬데 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하여 이란외무성대변인은 워싱톤이 자국에 대한 항공기판매를 승인해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이란국가복리리사회 전략연구쎈터 책임자는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적대감이 골수에 차있는데로부터 다른 구실을 붙여 새로운 제재들을 계속 가하고있다고 까밝혀놓았다.

옷음속에 칼이 있다는 말이 있다.

사실 미국이 이란에 비행기를 판매하기로 한것은 한갖 기만에 불과한것이였다.

앞에서는 속에 없는 옷음을 지으면서 이 나라와의 《관계개선》을 표방하지만 뒤에서는 어떻게 해서나 이란을 해치려 하는것이 미국의 진속이다.

미국은 미끼가 달린 낚시줄을 당겼다 늦추었다 하는 낚시군처럼 제재를 약간 풀어주는척 하다가는 더 바싹 조이는 방식으로 이란을 무력화하고 암살하려 하고있다.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이란과 이룩한 핵합의의 리행을 요리조리 회피하면서 한편으로는 주권국가로서의 이 나라의 미싸일발사권리를 《유엔결의위반》이라는 딱지를 붙여가며 시비질하다 못해 그에 따르는 새로운 추가제재를 가하였다. 또한 자국의 은행들이 이란측과 상업적래왕을 할수 없게 함으로써 금융계통을 리용한 거래를 차단하는 등 오늘까지도 이 나라에 대한 대부분의 제재를 그대로 유지하고있다.

미국의 목적은 딴데 있지 않다. 국제사회에서 이란의 지위를 깎아내리고 내부로부터 이란을 분렬와해시키려는데 그 흉심이 있는것이다.

《합의》와 《협상》이라는 회유와 기만속에 비렬한 행위들만을 일삼고있는 미국의 처사가 이란사람들에게 바로 보일리 만무하다.

이란인민은 미국이 보란듯이 자기의 길로 꿋꿋이 나아가고있다.

지난 6월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 쎄예드 알리 카메네이는 정부의 고위인물들앞에서 한 연설에서 이란에서의 제도전복을 꾀하는 미국의 속심은 변할수 없으며 따라서 앞으로도 이란과 미국사이의 호상관계는 끝이 보이지 않는 적대관계로 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미국이 이란핵합의문을 찢어버린다면 이란은 이를 불태워버리는것으로 대응할것이라고 엄숙히 경고하였다.

이것은 미국에 대한 이란인민의 분노와 불신의 감정이 어느 정도로 격화되였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이란에서 《나라의 진보를 위해 우리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나라들과 가까이 지내야 한다고 하는자들은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다.》라는 여론이 주류를 이루고있는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쓰고있는 랑면전술은 제국주의자들의 기만적인 웃음과 사탕발림의 《약속》에 절대로 환상을 가져서는 안된다는것을 다시한번 실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 라 명 성

대륙의 통합과 번영을 위한 움직임

제27차 아프리카통맹 국가 및 정부수뇌자회의가 르완다의 수도 끼갈리에서 진행되였다. 《녀성의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아프리카인권의 해, 2016년》을 기본의제로 하고 대륙의 정치, 경제적통합, 평화와 안정,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 이번 수뇌자회의는 모든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열의속에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개막연설에서 르완다대통령은 《우리가 하나로 단합하는 여기에 모든 문제해결의 열쇠가 있다. 단합은 구호가 아니다. 단합하는데 아프리카나라들이 살아갈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서 세계의 분렬은 증대되고있지만 아프리카나라들은 하나의 원칙으로 단합할수 있는 가능성이 풍부하다고 말하였다.

지난 시기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은 인적, 물적자원이 풍부하고 경제적발전잠재력이 큰 아프리카대륙을 손아귀에 거머쥐기 위해 이 지역에 경쟁적으로 뛰여들었다. 그들은 몇푼의 《원조》를 흔들며 회유와 강압적인 방법으로 아프리카나라들에 서방식《민주주의》를 강요하는 등 내정간섭책동을 로골적으로 감행하였다. 서방의 간섭과 전횡은 가뜩이나 종족 및 민족분쟁, 국경분쟁으로 시달리고있는 아프리카나라들의 불안정한 정세를 더욱 악화시켰다.

걷잡을수 없는 정치적혼란과 류혈적인 무장분쟁, 경제의 파국과 증대되는 빈곤, 무질서의 만연이 어제날 아프리카나라들의 현실이였다.

외세의 처방으로는 언제 가도 지대로 향하고있는 아프리카》라는 제목으로 된 기사가 실리였다. 신문은 아프리카통맹 국가 및 정부수뇌자회의가 진행된 소식을 싣고 아프리카통맹의 앞으로의 발전전망을 소개하였다.

그에 의하면 인구가 10억명이상(2050년까지는 20억명으로 늘어날것으로 전망)이고 국내총생산액이 3조US$로 될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는 망라된 나라수에 있어서 제일 큰 자유무역지대로 될것이라고 한다. 신문은 계속하여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창설협상을 2017년말까지 완결할 계획이며 이러한 사업들이 세계 다른 지역의 통반자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있다고 전하였다. 현실적으로 최근 년간 날로 높아가는 아프리카나라들과의 협조강화움직임이 국제사회의 눈길을 끌고있다.

신문은 끝으로 영국의 유럽통맹탈퇴여파로 다뿌주의에 대한 일련의 의견상이가 존재하지만 아프리카는 자기의 목표를 향해 계속 전진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한 의제에서도 명백히 밝힌바와 같이 녀성들의 권리를 적극 옹호하기 위한 문제도 토의되였다.

회의에 참가한 여러 나라 지도자들은 녀성들의 지력성을 보장하고 교육과 보건 등에 대한 녀성들의 접근을 실현하며 종국적으로 대륙에서 남녀평등을 이룩해나가야 한다고 한결같이 주장해나섰다.

오늘 아프리카통맹은 54개의 성원국을 가진 전대륙적인 기구, 아프리카인민들의 리익을 위한 권위있는 기구로서 대륙적으로 제기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서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원만히 해나가고있다. 현재 유엔성원국의 4분의 1이상을 차지한다는 한가지 사실만을 놓고서도 국제무대에서 아프리카나라들의 영향력을 무시할수 없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

대륙의 통합을 위한 이러한 노력은 평화와 친선, 진보와 발전을 지향하는 이 지역나라들의 심정을 놓고볼 때 지극히 정당한것이다.

아프리카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아프리카인민자신이며 아프리카문제는 그 어떤 외부세력의 간섭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이 지역인민들의 단합된 힘에 의해서만 해결될수 있다.

이것을 자각한 아프리카나라들은 현시기 대륙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화해와 단합의 방법으로 풀어나가고있다.

광범한 국제사회는 단합된 힘으로 부흥번영하는 대륙을 건설해나가고있는 아프리카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고있다.

대륙의 정치경제적통합을 실현함으로써 부흥하는 아프리카를 건설하려는 대륙나라들의 투쟁은 좋은 결실을 맺을것이다.

본사기자

ㄱ-611192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위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본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6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